

상한 물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 급수시설, 적절한 식수공급, 오염방지 등에 관심가져야 -

육계산업의 3대 자원을 아십니까? 맑은 공기(O₂)와 물(H₂O), 사료입니다.

많은 농장에서 이것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사를 신축할 때 환기 시설과 급수설비를 정성껏 설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장들은 중요도 순서를 자칫해서 거꾸로 적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바닥상태와 계분정도, 먼지와 가스등은 눈에 쉽게 보이므로 약간만 이상이 생기면 즉각 수리를 합니다만, 물탱크와 급수기라인 속에 있는 물은 자세히 보기전에는 무시당하기가 쉽습니다. 더구나 주변에 오래된 농장이나 오염 환경이 있는 곳에서는 더욱 물을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료값과 계육시세와 환기속에 묻혀버리곤 합니다.

닭의 입장에서 물을 살펴 봅시다.

영양제가 섞인 날은 느끼하고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투정도 하겠지요. 급수호스에 침전물이 쌓이지 못하게 소독약을 쓰는 날은 시큼털털 하겠지요. 3주일이 지나면 바닥에 깔린 호스사이에는 이끼가 끼거나 물찌꺼기가 관을 막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참을만 합니다만, 정작 바닥상태가 나빠서 대장균성 장염이나 콕시듐이 있어서 음수에 약제를 섞어 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무척 쓰거나 또 시기도 합니다. 닭이 미각도 발달되어 있느냐구요? 물론 미각기관이 있지요. 포유류만큼 섬세하지는 못해도 분명히 감각을 가지고 맛을 구별할 줄 압니다. 온도는 어떻습니까? 급수기에서는 15°C 전후의 냉수도 보온 탱크와 급수라인을 지나다 보면 어느새 25~27°C 전후의 더운물이 됩니다. 음수량에 영향을 주겠지요. 물이 영양소를 운반하고 체열을 조절하며 혈액의 구성 성분이고 산염기의 균형,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물질로서 닭의 80% 이상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요 원료가 오염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

하여 맑은 물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몇가지 점검을 해 볼까요?

- 급수용 관정주위에 오염원은 없는가?
- 급수 탱크는 정기적인 소독을 하며 어떤 소독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 수질 검사는 하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일반 세균과 대장균은 어느 정도 검출되고 있는지?
- 질산염과 불소(F)는 검출되지 않는가?
- 급수기는 계사청소때 함께 세척하는가?
- 막힌 호스는 반드시 물에 담궈서 용해시켜서 쓰고 있는가?
- 염분, 칼리는 적당한 수준인가?
- 약제투여후 세척을 하고 있는가?

위와 같이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물입니다. 그러나 계사 환경상 청소와 소독이 쉽지 않은 것이 급수시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매월 1일은 물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제양을 섭취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수량계가 제자리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오염이 되어 가고, 맛과 품질은 떨어지더라도 사료량의 1.8~2배 정도의 필요한 물은 먹고 있는지 파악하는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충분한 음수량이 공급되어 마실 때(먹는 것이 아님) 충분한 사료를 섭취하게 됩니다. 거래하는 회사와 인근 약품대리점을 통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농장에서는 수량과 섭취량을 점검하며 상한 물이 되지 않도록 보살피는 정성이 수익과 연결됩니다.

환절기에 다발하는 연변 발생과 여름철의 장염성 하리, 콕시듐 등도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경우 한결 개선되는 것을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하던 정성! 그시절, 첫시절의 물관리로 돌아갑시다!